



◆ 어린이 해와 책에 관한 세미나(대한출판문화협회) 발표주제

兒童圖書出版의 來日을 위하여

金 聖 哉

一志社 代表

1. 兒童圖書開發의 當面課題

出版의 모든 領域에 걸쳐서 볼 때에는 種類로나 質的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한 水準에 이르고 있으나, 兒童圖書 出版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나 先進國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兒童圖書開發을 위해 出版人들이 분발하여야 하고, 當局이나 社會에서는 이를 위한 與件造成에 각별한 關心과 協調를 아끼지 않아야 하리라 본다.

兒童書는 그 範圍가 넓고 장르도 多岐하다. 가령, 우리나라 出版分野 중 가장 落後된 그림책을 예로 든다면, 讀者對象에 따라 嬰兒用·幼兒用·國民學校 低學年用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內容上 類型으로는 事物그림책·이야기그림책(創作그림책·民譚그림책·名作그림책)·知識그림책·生活그림책 등 아주 多樣하다. 이중 옛날이야기책도 포함되는 民譚그림책과 名作그림책은 많은 종류가 나와 있으나, 그 나머지 것은 거의 없거나 있는 것조차도 우리것이 아닌 外國人의 思考方式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를 착하고 슬기롭고 밝게 그리고 우리 어린이답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質的으로 優秀한 創意的인 갖가지 종류의 그림책이 조화롭게 다 갖추어져 있어야 마땅한데, 이와 같은 종류의 그림책이 지금껏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各 段階別로 空白 없는 어린이文化를 形成시켜 줘야 할 어른들이 크게 反省할 일이다. 따라서, 兒童圖書 전반에 걸친 開發도 더욱 擴充되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림책의 開發이 무엇보다도 焦眉의 課題로 꼽지 않을 수 없다.

2. 그림책 開發이 안 되고 있는 理由

그럼, 어째서 그림책의 出版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일까. 그 理由로는

① 出版社가 거의 零細하여 막대한 製作費를 들여

採算이 맞지 않는 獨創的인 그림책을 만들려는 出版人이 적었다는 點

② 어린이의 情緒醇化나 知能啓發에 대한 어른들의 關心度가 적기도 하고,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影響, 곧 그림책의 効用性에 대한 부모들의 認識이 덜 되어 있어, 出版社의 處地로 볼 때에는 그림책은 별로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왔다는 點

③ 훌륭한 그림책 作家, 훌륭한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훌륭한 編輯者를 구하기 어렵다는 點

④ 政策的인 뒷받침이 전혀 없었다는 點

⑤ 어린이책은 싸야 한다는 固定觀念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定價가 높은 그림책을 살 만한 需要層이 形成되어 있지 않았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것 중 ②의 이유와 ⑤의 이유는 점차 解消되어 가고 있으니 그림책 開發에 있어서의 阻害要因이 줄어들고 있다 하겠다.

3. 兒童圖書開發에 있어 留意할 點

그림책은 책의 世界에 들어가는 첫 段階의 것이다. 그림을 鑑賞하는 책이 아니고, 그림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의 마음속에 이야기世界를 만들어 주는 책이다. 그림책에 나타나는 이야기世界는 어린이의 間接體驗의 폭을 넓혀 주는 동시에 풍부한 想像力을 싹트게 하고 꿈을 길러 주며 讀書의 즐거움까지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視點에서 바라보는 內容이야 하며, 挿畫는 그 內容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兒童圖書를 開發하는 데 있어서 編輯者가 留意할 점을 참고로 몇 가지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企劃의 斬新性과 獨創性을 늘 念頭에 둘 것이며, 時間을 들여서라도 훌륭한 粧册을 위해 高度의 編輯技術을 動員해야 할 것이다. 특히 校正의 徹底

를 期할 것이며, 써어쓰기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② 幻想的인 寫實的인 興味를 불러일으킬 만한 魅力的인 이야기이면서, 健康하고 누구에게나 共感을 줄 수 있는 普遍妥當性 있는 內容을 담아야 한다. 특히 어른의 생각이나 믿음이 強要되어 있지 않나 잘 살펴볼 것이다.

③ 年齡層에 따른 心身의 發達段階를 考慮하여 編輯上에 反映시켜야 한다. 가령 책의 크기도 어린이 손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知的 好奇心의 對象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內容選定도 年齡層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또, 되도록 쉽고 아름다운 文章을 택하되 文章의 難易度도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함에 유의할 것이다.

④ 특히 그림책에 있어서는 文字配列, 紙面構成에 細心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림의 意味傳達性에 하자가 없는지 잘 살펴보는 동시에, 어린이의 欲求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인가 아닌가를 잘 判別해야 한다.

色彩에 있어서도 이야기 內容에 부합한 色彩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테면 조용한 분위기의 이야기에는 차분한 色調의 그림이, 따뜻한 이야기에는 明度 높은 暖色이 어울릴 것이다.

4. 兒童圖書開發을 위한 提言

第2次世界大戰 이후, 各國은 어린이책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져, 兒童圖書가 出版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바람을 충족시켜 줄 만한 어린이책이 적은 現狀에 비추어, 이의 打開을 위한 與件造成을 위해 다음에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① 人的 資源의 確保와 養成

兒童圖書 開發의 主役은 編輯者가 담당한다. 編輯者란 讀者가 바라는 책을 著者(作家)에게 쓰게 하거나 著者가 쓴 것을 讀者가 읽고 싶은 책의 모습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람직한 編輯者가 그리 많지 않으니, 이들의 確保와 養成은 出版界가 直面하고 있는 難題 중의 하나이다. 특히 兒童圖書 編輯者는 企劃力은 물론 編輯技術이나 校正·粧册·資材 등에 관한 知識이 남달라야 하고, 심지어는 兒童의 發達段階라든가 讀書對象年齡의 親近語彙 조사, 兒童心理까지도 연구할 정도의 人材이어야 한다. 이들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報酬面에서부터 優待하는 見解가 없다. 이들을 養成하기 위해서는 大學에서의 出版學科 新設, 兒童學科 增設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次善의 方法으로는 出版文化

協會에 에디터스쿨을 併設하여 使命感이 투철한 엘리트를 研修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插畫, 圖解, 文彩 등을 그려 넣기도 하고 그것들을 레이아웃(layout) 하는 일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確保와 養成이 또한 時急하다. 插畫는 畫家에게 맡기는 것이 통상이고, 레이아웃은 編輯者가 直接 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藝術品으로서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圖書와 달리 일러스트레이터의 힘이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일러스트레이터의 不足이 또한 심각하다. 타고난 才質에다 오랜 研修가 필요한 일러스트레이터의 確保도 따뜻한 人間의 대우와 報酬面에서의 優待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세련된 資質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에디터스쿨에 일러스트레이션을 設置하여 研修시켜야만 한다. 大學의 美術學部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을 專攻하는 學生의 養成에 보다 積極의 姿勢로 임해 주었으면 한다.

② 政策의 支援

위에서 말한 人的 資源의 確保가 어려운 것은 結局은 出版界의 霧細性에 基因한다 하겠다. 더우기 賃金水準을 다른 業界와 맞추기에는 그 收益率이 도저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報酬面에서의 優待만이 人的 資源確保의 良徑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與件으로 점점 收益率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할 수 없으니, 우수한 人材를 붙잡아 둘 수도, 끌어들이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맛보고 있는 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른나라와 같이 하루속히 國家圖書開發委員會를 發足시켜, 특히 兒童圖書出版에 대한 積極의 이고도 長期的인 支援策이 여러 모로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政策의 뒷받침이나 바람직한 支援策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ㄱ.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을 擴充하는 同時에, 不實圖書을 사들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圖書購入에 있어 良質의 것이 뒷건으로 물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公共圖書館에는 반드시 兒童室(兒童閱覽室)이 마련되어야 하고 各地에 兒童圖書館을 設立하는 데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ㄴ. 各種의 좋은 책을 多量으로 사들여 文化弘報用으로 쓰기도 하고 公共機關에 備置시키는 政策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兒童圖書出版에 대한 支援에 그치지 않고 作家와 畫家 등 著者에 대한 훌륭한 支援策이 될 것이다.

ㄷ. 企劃賞, 編輯賞(북 디자인賞), 일러스트賞 등 施賞制度를 마련하여 兒童書出版界 從事者들의

意慾을 고취시켜야 한다. 우리와 같이 出版에 대한 施賞制度가 貧弱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것은 政府次元뿐 아니라 民間배이스도 마찬가지다.

ㄴ. 出版界에서 내고 있고, 또 충분히 낼 수 있는 책마저 國家機關이나 이에 준하는 機關에서 내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는 民間出版界를 萎縮시키고 豫算浪費에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ㄹ. 보로나(Bologna) 世界兒童圖書展같은 권위 있는 Book Fair에 積極 參加하여 視野를 넓히기 위해 參加費를 支援해야 한다. 先進國인 英國, 프랑스 및 北歐 여러 나라에서도 어린이책을 통한 國際理解를 위해 圖書展 參加者에게 支援을 하고 있다. 이 圖書展에서는 出版人·編輯者·作家·評論家들의 交流가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出版社에 주는 보로나國際兒童圖書 Graphic賞의 授賞行事도 있다. 또 보로나의 國民學校兒童(6세~9세) 9명에 의하여 뽑아서 授與하는 에르바(Erba)賞이란 것도 있다. 어린이의 눈으로 보아美的으로 느끼지고 表現이 재미있는 것에 대해 주는 賞이다.

ㄷ. “어린이 책잔치”를 해마다 열도록 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올해가 “世界兒童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책잔치조차 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다.

③ 讀書環境의 改善

讀書環境이 改善되지 않고는 어린이의 情緒訓練에 adequate한 保障을 가져올 뿐 아니라, 兒童圖書出版의 活性化도 기대하기 어렵다. 全人的 成長을 가로막는 知識注入만인 學校敎育, 치맛바람이 先導하는 課外 공부 熱風, 舊態依然한 方法에 의한 過多한 宿題 제공 등이 兒童들의 自律性과 自由로운 놀이와 讀書時間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自主的 判斷을 흐리게 하고 情緒를 메마르게 하며, 심지어는 어린이 노이로제 患者를 배출시키고, 兒童圖書出版의 설자리마저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讀書環境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兒童圖書專門書店이 各處에 생겨야 하겠다. 지금의 書店規模로는 몇 군데를 빼고는 모든 種類의 책을 다루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顧客誘致에도 得이 되지 못한다. 書店이 專門化해야 할 뿐 아니라, 그중에서도 어린이책의 專門書店은 充分히 採算을 맞출 수 있으리라 본다. 먼저 資力있는 兒童圖書 專門出版社부터 試圖해 볼적하다. 어린이 책방에서는 다만 어린이책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런던의 CBC(Children's Book Center)와 같이 適書를 選擇해 주는 등 良心의인 어린이책 情報提供을 함께 해 준다면 큰 成果가 있을 것이다. 또한 CBC에서는 作家와

畫家를 초청하여 어린이와의 對話時間을 마련하기도 하고 북 리스트와 兒童圖書專門書評誌도 發行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고려에 넣어 많은 어린이 책방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④ 批評活動의 強化와 推薦制度

批評 없는 곳에 發展이 있을 수 없다. 發展만 없는 게 아니라 惡의 꽃까지 安住할 수 있는 素地를 마련해 준다. 未來志向의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批評活動이 深化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兒童圖書分野는 거의 批評不在의 樣相을 띠고 있다. 겨레의 앞날을 떠맡을 어린이들이 책에 대해 이대로 放心만 한다는 것은 어른 中心의 思考方式에서 연유된다 하겠으며, 우리들의 어린이에의 向念이 아직 未熟함을 뜻하며, 어린이世界를 강건너 블로만 여기는 탓이 아니겠는가.

兒童圖書의 存在를 알림에 있어 요새 와서야 新聞에서의 新刊紹介欄에 겨우 오르기 시작한 데 不過하다. 어린이에게 어떤 책을 사다 주어야 할지 망설이고 당황하는 父母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한다면, 매스컴에서도 이 問題를 積極的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권할 만한 책이 적다」는 記事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권할 만한 책은 어떤 것이 나왔으며, 어떤 年齡層에 권할 만한 것이며, 어떤 점이 권할 만한 것인가를, 어린이를 가진 父母를 위해서도 學校의 先生님을 위해서도 성의있게 다루어 줘야 할 것이다.

兒童圖書의 選擇을 위한 案內는 이에 그치지 않고, 本格的인 書評誌도 나올 만한 時點에 다달았다고 본다. 또 엄격한 選擇을 통한 推薦圖書目録(Book List)도 다달이, 혹은 季刊으로 나올 수 있는 制度의 裝置가 시급하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介介되어 特定한 作家나 出版社의 利益을 위해서 한다면 없느니만 못할 것이니 嚴正히 선발된 專門家에 의한 圖書推薦選擇委員會를 構成하여 公正하고도 信賴할 수 있는 方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出協에서는 지금 流通되고 있는 兒童圖書 總目録을 조속히 刊行하여 여러 面으로 活用하도록 하여야겠다.

⑤ 印稅制度의 定着

兒童圖書는 단 出版物보다도 印稅에 의해 刊行하는 것이 적다. 물론 印稅까지 내면서 出版하기에는 어려운 分野임에 틀림없으나, 언제까지나 이대로 가서는 質的向上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

作品의 質을 높이고 原稿의 二重販賣·拔萃販賣 등 著作權法에 違背되는 일을 防止하고 貸名行爲 등

의 不美스런 일을 삼제하기 의해서도 印稅制度가 確立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림책에 있어서는 作家와 畫家 사이에 어떤 比率에 따른 印稅制度를 導入하여야 하리라. 그림을 사 버리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 採算을 맞출 수 없고, 그림 自體도 誠意를 다한 것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더우기 印稅制度가 定着되던 編輯者와 作家 및 畫家와의 사이에 유대감이 생기고, 이들이 차분히 일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 주게 되니, 人的資源 確保에도 有利한 高地에 서게 될 것이다.

⑥ 國際協力과 國內組織

兒童圖書의 向上과 그 交流를 꾀하려는 目的으로 組織되는 모임은 作家나 編輯者만에 의해서는 오달진 成果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觀覽에 呼訴하는 表現이 대부분인 그림책은 畫家나 일러스트레이터의 힘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들의 參與 없이 兒童圖書의 質을 높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 밖에도 出版人·圖書館員(兒童圖書司書)·評論家·兒童學研究家·번역가 등 兒童圖書의 關聯者 全體에 의한 包括的인 모임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兒童圖書 關係者 多數가 會員으로 되어 어린이책을 통한 國際理解를 目的으로 한 強力한 國際組織으로는 1953년에 26個國이 加盟한 가운데 發足한 IBBY(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日本(1958年 加盟), 이란, 印度 등이 加入하고 있다.

IBBY가 실시하고 있는 代表的인 事業은 안데르센賞(Hans Christian Andersen Medal)의 受賞者 選定으로 그림책 作家와 兒童文學 作家를 選定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隔年으로 大會를 열어 兒童圖書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討議하고, 機關誌로는 「북 버드」(Book Bird Magazine)를 發行하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IBBY에의 加盟을 아직까지 생각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國際機構를 몰라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IBBY에 加入하기 위해서는 먼저 假稱 KBBY(Korean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韓國兒童圖書協議會)라는 國內委員會의 組織이 先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兒童圖書 向上을 위한 세미나나 講座의 開催, 兒童圖書 關係者의 國際交流를 통한 親睦 및 情報交換, 兒童圖書 巡回展示, 各種 兒童圖書賞制度의 마련, 會報 發刊 등으로 活氣찬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이 밖에 世界兒童圖書展에도 적극 참여하여 民族의 香氣가 짙은 작은 藝術의 꽃을 자랑하기도 하고 世界 속의 韓國兒童圖書의 位相을 確認하기도 하여야

겠다.

※ 強力한 推進力을 가진 國際的 協力機構에 國際圖書館協會(I.F.L.A.)가 1955년에 發足시킨 兒童圖書委員會(Subsection of Library Work for Children)도 있음을 附記해 두다.

5. 글을 맺으면서

아름답고 맑은 情緒, 健全한 道德的 意志로써 구걸할없는 어린이다운 삶을 營爲케 하기 위해 우리는 좋은 營養素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좋은 어린이책에 의해서만 이것은 可能하며, '이렇게 자란 어린이는 主體性과 創意性을 가지고 2,000年代의 主役으로서 슬기롭고 確實性 있게 對處해 나갈 것이다. 이들의 앞날을 위해 보다 많은 出版人이 兒童圖書 出版에 參與하여 알찬 어린이책을 가멸지게 할 것이며 社會나 家庭에서는 어른中心에서 어린이가 中心으로 탈바꿈하는 同時에, 그들이 비틀어진 길로 나아감을 事전에 막기 위해서도 어린이책은 크나큰 구실을 한다는 認識을 새롭게 하여야 하겠다. 어린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世上 어버이로서 누구 하나 기뻐하지 않을 이가 있겠는가. 이 어린이의 기쁨은 바로 좋은 책에 의해 맛보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세삼 마음에 아로새겨야겠다.